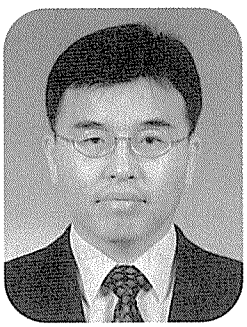
3년반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외환위기로 국내기업들은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견디기 어려운 허약한 기업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아직 생명은 유지하고 있으나 중병에 걸려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회생을 하고 퇴원한 기업도 있는 반면, 수술이 늦거나 잘못돼 사경을 헤매는 기업들도 있다.

물론 별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는 기업은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강제입원시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술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며, 앞으로 이 대상에 더 많은 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기업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의 건강을 혈압이나 맥박, 영양상태, 체중 등으로 판단하듯이 기업의 건강상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 사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재무구조는 3년반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당히 개선됐다. 전체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97년말 396%에서 작년말에는 절반 수준인 193%로 낮아진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S&P)가 작년 여름에 지적해 다소의 물의를 빚었던 바와 같이 부채를 줄이기 보다는 유상증자나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점은 차입경영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부 대기업집단은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 출자를 늘리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주식 소유지분율이 평균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재작년 1.7%에서 작년 1.3%로 낮아졌다. 영업이익은 개선됐으나 금융비용이나 환차손 등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1.57로 재작년(0.96)보다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3.54, 일본 3.68

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 즉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 부실기업이 여전히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S&P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2.9미만인 기업을 투기등급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국제적 관점에서 본 국내기업의 부실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조절에 비유할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장사 안되는 분야는 과감히 포기하고 핵심역량을 소수의 업종으로 집중시키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적과의 동침을 통해 유망한 분야에서는 경쟁사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결집시키는 기업들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과 거리가 먼 비관련 사업투자를 많이 늘린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끼리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서로 주식을 매입해 줌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국 재무구조나 수익성, 사업구조 등에서 볼 때 외환위기후 국내기업의 건강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아직도 불안한 면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 수술이 시급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작년 발표된 11. 3 기업정리 조치 등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직 정밀검사나 수술날짜 등이 잡히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

법정관리나 청산 매각 합병 등의 대상이 된 기업중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또 파산처리되기로 했으나 절차 문제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채권단은 1544개 기업을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해 정밀실사를 한 다음 퇴출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지금 건강한 기업이라도 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채를 줄이고 사업역량을 결집시키며,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직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기업에 비해 높다. 차입금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금융비용부담의 압박에서 헤어날 수 없다. 또 사업역량을 결집시켜야 자본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것 저것 다해보려고 할 경우 자본의 투입비용이 자본수익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되며, 이는 기업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부실채권에 허덕이는 금융기관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스스로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기피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만 빨아들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하루 빨리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분리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금융부실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